

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눅3:7-14)

### 요한의 세례

<sup>7</sup>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sup>8</sup>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sup>9</sup>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sup>10</sup>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sup>11</sup>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sup>12</sup>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sup>13</sup>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sup>14</sup>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

물로 씻는 것과 세례는 그 자체로 유대인들에게서 악과 거짓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그러한 것을 표상하고 뜻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서 마치 정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유대 교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 천국과 결합했을 때, 천국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 (AE.724:8)

※ 이 AE(*Apocalypse Explained*) 724:8번 글에 대한 Ager 영역본은 아래와 같고,

*The washing and baptizing itself did not indeed purify them from falsities and evils, but only represented and thence signified purification from them; nevertheless, this was received in heaven as if they were themselves purified. It was thus that heaven was conjoined to the people of that church by means of the baptism of John; and when heaven*

눅3:7-14  
'요한의 세례'

*was thus conjoined to them, the Lord, who was the God of heaven, could manifest Himself to them there, teach them, and abide among them...*

이는 계시록 12장 5절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남자라'에 대한 주석의 일부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이 회개 의 세례를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의 낡은 교리를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진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새로운 말씀을 의미하고, 세례는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식의 개혁이며, 동시에 신앙의 전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교회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진리가 신선해서, 또 어떤 이는 요한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자도 있었고, 진리에 대해 무지하지만 순종할 줄 아는 단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7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나**

라고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 4533번에는 천국에서는 사기꾼들이나 위선자들이 천사들 앞에 나타날 때 독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4533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But when the same are looked at by the angels of heaven, that luminosity is instantly dissipate*

*d, and they appear with totally different faces, each according to his genius. Some are dusky and black like devils; some have ghastly faces like that of a corpse; some have almost no face at all, and instead of a face there is a mass of hair; some are like grates of teeth; some like skeletons; and what was still more strange, some are like monsters, the deceitful are like serpents, and the most deceitful are like vipers, while others appear differently.*

이는 창세기 34장 주석 클로징 글인 큰 사람의 눈과 빛에 관한 상응 관련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큰 사람'이라는 표현은 천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천국 전체가 한 사람 모습이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로는 'The Grand Ma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무리 전체를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위선자들에게 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다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노하시거나 사람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진노란 주님이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들의 내면에 있는 분노와 증오심을 말합니다. 위선자와 거짓말쟁이는 마치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지만, 속으로는 진리를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육신의 옷을 벗게 되면 진리에 대한 혐오감과 적개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피할 수 없다는 진노는 주님의 진노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그들 자신의 분노이며 적개심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8절에서 요한이 그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sup>8</sup>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눅3:7-14  
'요한의 세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앞의 아브라함은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표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오만함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상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과 세상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즉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 우상을 믿었던 아브라함, 즉 아브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는 돌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돌은 감각의 진리를 뜻합니다.

감각의 진리란 어떤 것입니까? 눈이나 코, 입 같은 감각으로 이해하는 진리가 감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각은 진리를

이해하는 수단으로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모두 진리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감각의 진리를 믿을까요? 주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주님이 주시는 내적 기쁨보다 감각의 쾌감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사29:13)라고 한탄하셨고, 요한 역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의 위선과 악행을 버리고, 진리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9절에서 말합니다.

<sup>9</sup>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나무는 사람의 지성, 즉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자연계에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종종 사람을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고 합니다. 도끼는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위선자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뿌리에 그들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는 모두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으니 당연히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하고, “**그것이 썩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썩히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성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불에 던져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명할 것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

씀에서 지옥을 불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곳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에게서 발산되는 탐욕의 불길 이 그렇게 뜨겁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순수하지 않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옥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욕망의 열기가 한도 끝도 없이 발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서는 유황불로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10**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요한에게 묻는 사람들은 적어도 말씀을 통해 삶의 지침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독사의 자식**”이라 불리는 위선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저들 독사의 자식들과는 달리 비록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그래도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요한은, 11절입니다.

눅3:7-14  
'요한의 세례'

**11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자기 소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속뜻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옷은 진리를 말합니다. 왜 옷이 진리를 의미하느냐 하면 진리는 선의 드러남, 즉 선의 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자체로는 보이지 않고 진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옷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선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양식은 곧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옷 두 벌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자아에서 나오는 진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진실한 것과 자아에서 오는 거짓된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을 두 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중에서 인간의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

다. 왜 그러실까요? 인간의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도를 위해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리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벌 옷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세리를 거의 매춘을 하는 사람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sup>12</sup>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sup>13</sup>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성문서에서는 세리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고, 그러므로 진리와 선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과 세리의 문답은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배울 때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대로 받고,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자의 영적 능력만큼 진리도 주시고 선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영적 역량보다 더 많은 진리를 받을 때, 그것을 더럽히거나 남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선을 남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또는 물질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진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남용하고 더럽히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리를 욕심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추론하고, 그렇게 해서 왜곡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세리들에게 하는 말은 진리를 배우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는 세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sup>14</sup>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죽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서 군인은 누구입니까? 군인은 영적인 군인을 말합니다. 영적인 군인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순한 욕망과 싸우고, 진리에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자

눅3:7-14

‘요한의 세례’

하는 유혹과 싸우는 사람이 주님의 군사입니다. 따라서 세리와 군인은 신앙인들의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측면이고, 후자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군인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지옥의 군대로 변합니다. 그것은 유대 교회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군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구요, 영어 성경에는 “사람을 폭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사람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말씀에서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폭행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모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

하면 진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더럽히는 것일까요? 진리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진리에 위배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추론(推論)하고 왜곡하는 것이 진리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군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마음대로 추론(推論)하여 이른바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흠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타박을 하고,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먹었다고 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구나”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두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며, “사람을 폭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거짓 진리를 가지고 참된 진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비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참된 진리를 비방하는 행동입니다. 유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비방하고 욱보이는 것을 말씀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새 교회 진리를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표상하는 요한은 군인들에게 “사람을 폭행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지옥의 편에 서서, 진리를 비방하고 욱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군사들이 받는 급료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서의 소임을 충실히 할 때, 주님은 급료를 주세요. 그 급료란 진리와 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와 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진리와 선을 사랑합니까? 진리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로 끌어내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직 진리에 대한 애정이 충분치 않지만 주님의 군사로서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주님께서 급료를 주세요. 주님의 군대에 합당한 급료를 주십니다. 그 급료가 바로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입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물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지만, 우리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급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에 족하라고 하십니다. 족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을 기뻐하고 다른 세속의 것들을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부족

눅3:7-14  
'요한의 세례'

하지 않게 주십니다. 다만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새 교회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위선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고, 또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보다 자기의 지성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만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애정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아의 말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에 휘둘리게 되고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어느 만큼은 위선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선을 벗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된 기독교 784항에서는 “**거짓이 있는 곳에 참된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거짓의 뿌리가 뽑혀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 TCR(*True Christian Religion*, 참된 기독교) 784번 글에 대한 *Ager* 영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For where falsities have already been implanted what is new can not enter until the falsities have been rooted out, and this will take place with the clergy, and so with the laity;*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의 낡

은 가르침, 교회의 낡은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진리가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낡은 습관들을 매일 같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 교회 모든 가족과, 또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62:11)

아멘

원본  
2017-03-26(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편집 및 설교  
2022-12-14(D4)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